

글로벌 재난 윤리의 종교적 접근 가능성과 중요성에 대한 연구*

조용훈 (한남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글로벌 재난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원인
 1. 글로벌 재난의 유형
 2. 글로벌 재난의 특징
 3. 글로벌 재난의 원인
- III. 재난 없는 세계를 인류의 노력들과 한계
 1. 철학적 접근과 코스모폴리타니즘
 2. 국제정치적 접근과 유엔의 활동
 3. 세계 경제적 접근과 팍스 에코노미카(pax economica)
- IV. 재난없는 세계를 위한 대안적 노력으로서 종교적 접근의 가능성과 미래적 과제
 1. 종교적 도덕 자원의 중요성
 2. 세계종교의 노력들과 성과
 3.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활동과 미래적 과제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4.12>

* 이 논문은 202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1S1A5A2A01062752)

• ABSTRACT •

Study on the Religious Approach to the Global Disaster Ethics

Prof., Jo, Yong-Hun (Hannam University)

As the dependence between countries increases in the global era, disasters will be also globalized. Global disasters like as economic crisis, terrorism and war, climate crisis, and global infectious disease make it difficult to identify their causes, asking for responsibility and prepare countermeasures caused by their complex structure. The philosophical cosmopolitanism, international political efforts(UN), and the globalization of economy(pax economica) that mankind has pursued a better world without disasters are now being revealed as failures. The world is still suffering from hunger, war, climate crisis, and global infectious diseases.

This study aims to find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globalization necessary to overcome the global disasters in religious moral resources. As seen in the Golden Rule, world religions have a vision for a better world and moral resources to put that vision into practice. However, if they do not want to repeat the moral mistakes that have been made in history, they must overcome the temptations of privatization and nationalization of their faith. In addition, the identity of believers must be constantly expanded from a religious person to a global citizen.

Key words: Global Disasters, Cosmopolitanism, UN, Pax Economica, Ecumenical Movements

I. 들어가는 말

지금 우리는 재난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가 아니라 지구행성 전체를 위협하는 ‘글로벌 재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재난이 없었던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의 재난이 지진이나 화산폭발 같은 자연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면, 최근의 재난은 지구적 차원에서 인간적 요인과 복잡해진 사회 구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세계 경제위기, 테러와 전쟁, 기후위기 그리고 감염병 팬데믹은 현대인의 도덕적 실패와 사회구조적 결함에 의해 생겨난 대표적인 글로벌 재난들이다.

19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경제의 지구화(세계화) 과정은 자유 무역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노동과 시장의 통합을 통해서 세계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긴 했지만, 재난의 위험성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지구화 과정에서 전 세계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이 커짐으로써 한 국가의 경제위기나 전쟁, 환경파괴나 감염병은 급속히 전 세계적 재난으로 바뀌고 있다.¹⁾

그런데 글로벌 재난은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하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재난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한 예로써,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의 원인이 동물의 서식지 파괴나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책임을 묻고, 국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다.

1) 예를 들자면, 경제의 지구화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9.11테러(2001)와 그에 맞선 미국의 보복전쟁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생한 미국의 금융위기(2008)는 급속하게 전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한편,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감염병은 수십 년간 진행된 글로벌 공급망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두 나라의 경제와 평화만 아니라 전 세계경제와 세계평화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 위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재난을 예방하려면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더불어 전 세계인이 공동운명체라는 지구적 시민의식을 필요로 한다. 전자가 글로벌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라면, 후자는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라 하겠다. 몰트만(J. Moltmann)이 지적했듯이, 글로벌 시대는 “인류의 연합만이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며, 모든 개개인의 생존은 인류의 연합을 전제한다.”²⁾ 2022년 7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도 글로벌 재난 시대에는 인류의 선택이 공동대응 아니면 집단자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전 세계적 연대와 협력을 호소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각 국가는 연대와 협력 대신에 오히려 봉쇄와 각자도생의 전략을 선택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보건기구(WHO) 조차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또 다른 글로벌 재난인 기후위기 이슈는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국제적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훨씬 더 어렵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역시 경제대국이니 선진국이니 자랑하면서도 정작 기후위기 해결에 요청되는 책임의식과 리더십은 매우 빈약한 ‘기후 불량국’이다.

이 같은 현실인식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는 재난 없는 세계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지구윤리를 발전시키는데 근본 목표를 둔다.³⁾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글로벌 재난이 과거의 재난들과 어떻게 다르며, 원인이 무엇인지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뒤 이어 그간 인류

2) Jurgen Moltmann, *Ethik der Hoffnung*, 광혜원 역, 『희망의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31.

3) 이 연구는 ‘글로벌 재난 시대 지구윤리의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독교윤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다년과제의 1년차 연구다. 이 연구에 뒤이어 지구윤리에 대한 윤리학적이고 신학적인 논의를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가 모색했던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계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왜 좌절되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세계는 여전히 기아와 전쟁 그리고 감염병의 위협 아래 있으며, 지구적 기후재앙이라는 새로운 재난까지 덮쳐오고 있다. 이런 현실 인식에 기반하여 재난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대안으로 종교적 접근의 가능성과 성공조건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글로벌 재난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원인

1. 글로벌 재난의 유형

오늘날 글로벌 재난은 경제위기와 기아, 테러와 전쟁, 기후위기 그리고 글로벌 감염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세계적 경제위기는 경제의 지구화 과정에서 생겨난 재난이다. 2008년 미국서 발생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은 순식간에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붕괴시켰다. 지구화 경제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경제의 지구화가 중국을 제외한 빈곤 국가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세계인구 중 약 40%가 여전히 빈곤상태에 있으며, 그 가운데 6분의 1인 8억 7천만 명이 극빈상태에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극빈상태에 있는 인구수가 1981년에 1억 6천만 명에서 2001년에는 3억 1천만 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⁴⁾ 지구화 경제는 빈곤층의 상황 악화만 아니라 전 세계적 부의 불평등 분배라는 또 다른 문제도 불러왔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Oxfam)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세계 상위 1퍼센트의 부유층이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차지한 반면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빈곤층은 전 세계 부 가운데 겨우 1퍼센트만 소유하고 있다.⁵⁾

4) Joseph Stiglitz, *Making Globalization Work*, 홍민경 역,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과주: 21세기북스, 2008), 73.

5) 박선미, 김희순, 『빈곤의 연대기』 (서울: 갈라파고스, 2015), 5.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천문학적 재정 투입이 가능했던 선진국과 달리 만성적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에서 빈곤층의 생존 위협은 훨씬 더 커졌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WHO와 공동으로 펴낸 '2021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실태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인구는 7억2천만 명에서 8억1천1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 다른 글로벌 재난인 테러리즘과 전쟁, 그리고 핵무기의 확산은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지구화 경제는 이데올로기 갈등을 종식시킨 했지만, 새로운 형태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 켈도어(M. Kaldor)가 관찰했듯이, 냉전 이후의 전쟁은 민족, 종교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전쟁의 원인과 형태가 과거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다.⁶⁾ 새로운 전쟁에서 합법적인 정부에 의한 선전포고나 민간인의 보호의무 같은 전통적인 전쟁윤리나 국제규범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대테러전쟁을 수행한다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국가까지도 테러국과 비슷하게 부당한 폭력을 공공연히 휘두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세계는 다시 군비경쟁의 시대로 복귀하고 있으며, 그간 금기로 여겼던 핵무기 사용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생겨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군사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의 군사비지출은 2조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갈등이 심화되면서 군비경쟁은 더 가속화할 것이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국가들 숫자가 늘면서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

6) Mary Kaldor, *New & Old Wars: Organized Violence in a Global Era*, 유강은 역, 『새로운 전쟁과 낡은 전쟁, 세계화 시대의 조직화된 폭력』 (서울: 그린비, 2010), 34.

확산금지조약(NPT)이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과 같은 국제기구의 영향력까지 약해지고 있다. 만약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인류만 아니라 지구행성도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⁷⁾

세 번째 글로벌 재난인 환경오염과 생물종 파괴 및 소멸, 그리고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가뭄과 대형 산불은 지구 역사에서 여섯 번째의 대멸종의 시작일 수 있다는 두려움을 낳고 있다. 기후위기는 전쟁이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희생자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수자원 부족이나 식량위기를 불러오고, 수많은 섬나라와 연안의 대도시들을 침수시키고, 대규모 환경난민을 발생시키면서 세계평화까지 위협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약’(2015)을 체결했고, 뒤이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2018)를 통해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금세기 말까지 지구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할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2020-2052년 보다 10여년이 앞당겨진 2014-2040 사이에 이미 지구온도가 1.5℃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성장 중심의 경제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큰 미국의 대기업들이나 학자들 가운데에는 기후위기를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허위사실이거나 음모론이라고 보면서 환경론자들을 공공연히 공격하기까지 한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재

7)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폭탄의 양은 TNT 200만 톤이었고,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은 겨우 13킬로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수 시간 내에 100억 톤의 폭탄을 사용할 수 있고, 전면적인 핵전쟁이 시작되면 전 세계 모든 도시에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 약 100만개 분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 참고: Carl Sagan, *Cosmos*, 홍승수 역, 『코스모스』 특별판 (서울: 사이언스북스, 2020), 635-637.

난은 세계적으로 1,5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고,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시킴으로써 세계경제를 크게 후퇴시켰다. 걱정스러운 것은 환경파괴와 기후위기 시대에 코로나19 같은 글로벌 감염병 재난은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다. 월터스(J. Walters)는 코로나 19의 전신인 사스를 비롯해 신종 감염병의 약 75%가 야생동물이나 가축에게서 전파된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특성에 근거해서 신종 감염병을 ‘에코데믹’(eco-demic) 곧 생태병 혹은 환경전염병이라고 정의한다.⁸⁾ 지젝(S. Zizek)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가리켜, 자연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에게 복수하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팬데믹을 극복하려면 지금처럼 국가 간에 벽을 쌓고, 격리와 고립을 강화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지구적인 연대와 협력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⁹⁾ 유감스럽게도 세계는 그간 추구했던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문화에서 급격히 자국우선주의 문화로 후퇴하고 있다.

2. 글로벌 재난의 특징

글로벌 시대에 재난은 국가적 범위를 넘어 지구적 범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재난의 원인과 결과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직접적 원인은 박쥐나 천산갑 같은 야생동물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로 전이된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전이는 산림 벌채나 댐 건설, 도로 개통 등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파괴된 결과다. 그 외에 공장 식 축산 시스템이나 생물다양성의 파괴 그리고 지구온난화도 영향을 미쳤다. 말하자면, 팬데믹과 기후재앙은 같은 뿌리에서 생겨났다. 이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신종 감염병의 폭증과 기후변화의 악화가

8) M. Jerome Walters, *Six modern plagues: and how we are caused them*, 이한음 역, 『에코데믹, 끝나지 않는 전염병』 (서울: 책세상, 2020), 9.

9) Slavoj Zizek, *Pandemic: COVID19 shakes the world*, 강우성 역, 『팬데믹 패닉』 (서울: 북하우스 2020), 76, 104, 111.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⁰⁾

글로벌 시대에 환경과괴는 환경문제로 그치지 않고 세계평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써, 메콩강이 지나는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6개 국가들 사이에 수자원 갈등이 점점 첨예해지고 있다. 기후위기에서 발생하는 환경난민의 문제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독일의 환경장관을 역임했던 퇴퍼(K. Toeffler)가 “환경정책은 곧 평화정책이다.”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¹¹⁾

한편, 재난은 고통을 불평등하게 배분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재난으로 말미암는 고통은 보통 한 나라 안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국제적 차원에서는 저개발국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다. 머티(J. C. Mutter)가 분석했듯이, 재난의 불평등 문제는 재해의 크기가 아니라 불의한 사회구조나 부조리와 연관되어 있다.¹²⁾ 재난의 피해는 한 사회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불평등한 구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득권층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클라인(N. Klein)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탐욕적인 권력과 자본이 어떻게 재난마저 돈벌이 기회로 악용하는가를 ‘재난 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¹³⁾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바이러스는 한 국가 안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약자, 요양원, 독거노인, 돌봄 어린이, 노숙

10) 조효제, 『탄소 사회의 종말』 (과주: 21세기북스, 2020), 10-11.

11) Franz Alt, *Der oekonomishe Jesus*, 손성현 역, 『생태주의자 예수』 (서울: 나무심는사람, 2003), 57.

12) John C. Mutter, *Disasterprofiteers: how natural disasters make the rich richer and the poor even poorer*, 장상미 역, 『재난 불평등: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 (서울: 동녘, 2016).

13) Naomi Klein, *The Shock Doctrine: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 김소희 역, 『쇼크 독트린: 자본주의 재앙의 도래』 (과주: 살림출판사, 2008).

자, 자영업자, 이주노동자 등에게 더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 국제적 차원에서조차 비슷한 현상이 목격되었는데, 저개발국에서 더 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저개발국의 경제와 사회를 더 치명적으로 파괴했다. 기후위기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는 G20 부자국가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저개발국이나 투발루 같은 작은 섬나라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글로벌 재난의 원인

글로벌 재난의 발생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 곧 후기 산업사회문명의 내재적 결함과 경제 지구화 비전의 실패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재난은 과학기술이 고도화되고,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후기 산업문명의 피할 수 없는 결과다. 대표적인 위험사회론자인 벡(U. Beck)의 주장대로, 금세기의 재난과 위험은 근대성의 성공에서 생겨난 필연적 결과다. 인류는 근대성의 발전을 통해 자연재난을 어느 정도 극복했지만 산업사회 후기 곧 2차 근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 사고나 환경파괴와 기후위기 같은 새로운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런 위험들을 극복하려면 첫 번째 근대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새로운 근대성 곧 ‘성찰적인 근대성’을 발전시켜야 한다.¹⁴⁾

둘째, 글로벌 재난은 1980년대부터 진행된 경제 지구화 과정에서 생겨난 피할 수 없는 결과다. 경제 지구화는 냉전체제를 이끌었던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면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14) Ulrich Beck,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홍성태 역, 『위험 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1997), 69.

을 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다툼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물론 경제 지구화 덕분에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는 1950-60년대의 미국의 황금기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¹⁵⁾ 하지만 경제 지구화는 환경파괴나 분배 불평등 문제 같은 새로운 사회이슈를 만들어냈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 등장한 포퓰리즘 정치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등장한 ‘백신 민족주의’는 지구화된 세계를 다시 국가주의의 틀로 후퇴시키고 있다.

경제 지구화가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철학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애초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자본과 원자재, 그리고 노동력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국경을 없애려는 다국적기업과 거대금융자본의 기획이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은 기후위기 같은 글로벌 재난을 해결할 의지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클라인(N. Klein)은 기후위기 문제를 ‘자본주의 대 지구 사이의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기후위기가 인류를 멸망시키기 전에 인류가 탈규제와 무한팽창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⁶⁾

셋째, 글로벌 재난은 현존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약화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지구화 과정의 결과 상호의존성이 커진 세계에서 인류 공동의 문제가 된 글로벌 재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단적 행동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았듯이, 글로벌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 WHO조차 신뢰와 영향력을 잃었다. WHO만 아니라 점점 침해해지는 국가 간 무역 분쟁을 중재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15) Joseph Stiglitz,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447, 각주 4. 참조.

16) Naomi Klein, *This changes everything: capitalism vs. the climate*, 이순희 역,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과주: 열린책들, 2016), 45.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할 과업을 위해 만든 유엔기구들이 무기력해지면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III. 재난 없는 세계를 위한 인류의 노력들과 한계

1. 철학적 접근과 코스모폴리타니즘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철학적 비전은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디오게네스나 제논 같은 스토아학과 사상가들은 보편이성(로고스)에 기초한 코스모폴리타니즘(사해동포주의)을 주장했다. 디오게네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특정 폴리스(polis)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계 혹은 우주에 속하는 사람(kosmopolites)이라고 정의했다. 제논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지역과 국가를 넘은 존재로 규정하였고, 하나의 법 아래에 있는 우주적 폴리스의 건설을 강조했다. “우리 인간은 모든 다른 사람들을 동료 시민으로, 같은 지역주민들로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마치 한 무리의 가축들이 같이 풀을 뜯어 먹으며 공동의 방식에 의해 함께 양육되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에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길이 있어야 한다.”¹⁷⁾

이런 생각은 로마의 정치인이요 사상가였던 세네카의 이중시민권으로 발전했다. “세계에는 두 가지 연방국가가 있다고 생각하자. 하나는 이 지구의 어느 특정한 경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태양에 의해 우리의 시민성이 묶이는, 그리고 신들과 인간들을 모두 포용하는 방대하고 진정한 의미의 공동 국가이며, 또 다른 하나는 출생의 우연성에 의해 규정되는 국가다.”¹⁸⁾

근대에 들어서자 칸트나 괴테 같은 계몽주의자들이 이성적 능력과 자연법적 원리에 기초한 보편적 공동체와 세계시민주의를 주창했다. 특히,

17) 강남순, 『코스모폴리타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82-83 재인용.

18) 위의 책, 84 재인용.

칸트의 ‘영구평화론’에는 국가 간 갈등과 폭력을 넘어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로서 세계시민주의 이념이 나타난다. 그는 인류가 평화를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세계시민의식과 환대에 대한 보편적 의무와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의 인간존엄성 및 보편적 권리의 보장이 요청된다고 말했다.¹⁹⁾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보편적 이성의 힘으로 평화롭고 정의로운 하나된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꿈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무너졌다.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이해나 세계에 대한 낭만적 세계관이 지닌 비현실성에 대한 신학적 통찰은 자유주의 신학의 비판을 특징으로 하는 위기의 신학 혹은 신정통주의 신학과 윤리 사상에 반영되었다.

2. 국제정치 접근과 유엔의 활동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상과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경험하면서 인류는 인간의 존엄성과 세계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정치적 기구의 필요성을 깨닫고 노력한 결과 마침내 국제연맹(1920)과 국제연합(1946)을 차례로 만들었다. 국제연합(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1948)에는 인류가 수호해야 할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나타나 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제1조)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제2조)

뒤이어 유엔은 수십여 개의 협약들과 조약들 그리고 규약들을 통해 인간존엄성의 발전을 위한 의지를 표현했다. 여기에는 1966년에 제정된 시

19) 위의 책, 97.

민의 사회적 평등과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이 포함된다. 그 후 지구화 시대를 맞아 인권에 대한 논의는 노동권, 발전권, 환경권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이른바 ‘제3세대 인권’논의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²⁰⁾

유엔은 2000년 189개 소속국가와 23개의 국제기구들과 공동으로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로서 여덟 가지를 제시하고, 2015년까지 실천하자고 결의했다.²¹⁾ 2015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곧 기아와 빈곤, 평화 위협과 기후위기와 같은 재난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17개의 발전목표와 이를 실현하는데 요청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시했다.²²⁾ 그리고 유네스코 철학윤리국이 주축이 되어 인류의 생존과 세계평화를 위한 지구윤리의 형성을 위한 논의를 ‘보편윤리’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²³⁾

한편,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기초해서 인간의 윤리적 책임 범위를 인간 종을 넘어 모든 생물 종으로 확장할 것을 주장한 싱어(P. Singer)는 지금의 세계를 더 나은 세계로 바꾸려면 현존하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시켜서 ‘하나의 경제, 하나의 대기 그리고 하나의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구 위의 어느 지점

20) Ishay Micheline, *The History of Human Rights: From Ancient Times to the Globalization Era*, 조효제 역, 『세계인권사상사』 (서울: 길, 2005), 428-466.

21) 여기에는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초등교육의 확대와 보장, 남녀평등과 여권 신장, 유아 사망률 감소, 임산부 건강 증진, 에이즈나 말라리아 같은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그리고 저개발국의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이라는 목표가 포함되었다.

22) 이 프로젝트에는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양성 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 사회기반시설,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 도시, 책임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의 보존, 평화와 정의의 사회, 글로벌 파트너십이 포함되었다.

23) UNESCO Division of Philosophy and Ethics, “21세기 지구촌의 보편윤리는 가능한가”(1998), in: 유네스코 코리아 누리집 (www. https://www.unesco.or.kr/data/report/list/60/?s_cat=4).

에서가 아니라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보려는 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²⁴⁾

하지만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한 재난 없는 세계에 대한 꿈 역시 많은 문제점을 지닌다. 이는 유엔의 도덕적 호소가 실천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며, 국가에 속하지 못한 비국적자에게는 아무런 법적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유엔기구들의 의사결정구조가 비민주적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세계 평화와 안전에 관한 사안을 결정할 독점적 권한을 지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프랑스는 정전명령이나 유엔군 파견을 결정할 배타적 권리를 지니지만, 각 국가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임이사국이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한다거나(미국), 전쟁을 일으켜도(소련) 제재할 방법이 없다. 어찌 보면 이들 상임이사국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평화 위협의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²⁵⁾

스티글리츠(J. Stiglitz)는 국제기구들이 신뢰감을 잃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구화 경제를 규율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함께 발전시키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²⁶⁾ 실제로, IMF나 WTO 같은 국제기구들의 의사결정 구조가 비민주적이어서 선진국이나 이들 국가 내의 특수이해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²⁷⁾ 말하자면, 국제적 연대와 상호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들 안에도 여전히 강대국의

24) Peter Singer, *One World: The ethics of globalization*, 김희정 역, 『세계화의 윤리』 (과주: 아카넷, 2003), 83-193, 256.

25) George Monbiot, *The Age of Consent: A Manifesto for a New World Order*, 황정아 역, 『도둑맞은 세계화』 (과주: 창비, 2006), 76-77.

26) Joseph Stiglitz,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453.

27) 예를 들면, IMF는 각국의 국제무역 규모, 국민소득액, 국제준비금보유량에 따라 회원국 정부의 출자와 그에 따른 비례적 투표권을 배분하는 구조여서 선진국의 경제 지배력을 벗어나기 어렵다. 참고: 박선미, 김희순, 『빈곤의 연대기』, 169.

힘의 논리와 제국주의적 세계지배 방식이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3. 세계 경제적 접근과 팍스 에코노미카(pax economica)

1980년대부터 진행된 지구화 경제는 노동과 자본, 상품과 서비스,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국경 없는 경제활동을 추구했다. 다국적기업과 국제금융자본가들 그리고 경제 지구화를 옹호하는 정치가들은 세계시장의 통합이야말로 전 세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경제 지구화의 추진 과정에서 1980년대 말 동유럽의 현실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여러 대륙에서 권위주의적 군부독재 국가들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주장대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²⁸⁾

프리드먼(T. Friedman)이 내세운 ‘황금 아치(맥도날드 로고) 갈등예방 이론’과 ‘텔(컴퓨터) 충돌예방 이론’은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통합의 과정 속에서 국가 간 갈등이 줄어들면서 전쟁의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론이다. 즉, 맥도날드 매장이 있는 나라나 텔컴퓨터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중산층의 소비력이 충분하고, 경제적 개방성과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상호의존도가 높아서 서로 갈등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의 가능성도 자연스레 작아질 것이라는 추론이다.²⁹⁾

일찍이 고대 로마가 법과 군대를 통해 세계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28)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이상훈 역, 『역사의 종말』 (서울: 한마음사, 1997).

29) Thomas L. Friedman,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신동욱 역,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서울: 창해, 2000), 422-467; 동저자, *The world is flat: a brief history of the twenty-first century*, 김상철 외 역, 『세계는 평평하다』 (서울: 창해, 2005), 564-572.

팍스 로마나(pax romana)를 주창했다면, 경제 지구화는 경제가 잘되면 세계평화도 가능하다는 팍스 에코노미카(pax economica)를 주창한다. 허경희는 경제중심의 체제인 팍스 에코노미카는 장사 잇속으로 치러진 십자군 원정과 돈으로 죄를 사해주는 교황청의 면죄부 발행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분석한다. 뒤이어 19세기 말에 경제적 착취를 위한 서구 열강의 식민지 개척시대에 그 기반이 확고해졌고, 대량소비사회를 거쳐 20세기 후반의 경제 지구화 과정에서 절정기를 맞고 있다고 본다.³⁰⁾

그런데 경제적 통합을 통해서 세계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경제 지구화의 비전이 실패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구화 경제 세계가 점점 더 ‘평평해지고 있다’는 프리드먼(T. Friedman)의 진단과 반대로 스미크(D. M. Smick)은 세계경제 특히 금융시장의 세계는 ‘구부러져 있다’고 진단한다.³¹⁾ 경제 지구화는 많은 나라에서 절대빈곤을 심화시켰고, 경제적 불평등을 세계화했으며, 노동과 복지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이념을 후퇴시켰고, 지구적 환경위기를 불러왔다.³²⁾ 경제 지구화의 토대였던 국제적 분업체제와 공급망이 팬데믹과 미중 사이의 패권 다툼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붕괴되고 있다.

IV. 재난 없는 세계를 위한 대안적 노력으로서 종교적 접근의 가능성과 미래적 과제

1. 종교적 도덕 자원의 중요성

위에서 우리는 재난 없는 세계를 위한 인류의 철학적 코스모폴리타니

30) 허경희, 『새로운 밀레니엄은 없다』 (서울: 오름시스템, 1999), 21-25.

31) David M, Smick, *The world is curved: hidden dangers to the global economy*, 이영준 역, 『세계는 평평하지 않다』 (서울: 한국물가정보, 2009), 19-20.

32) 조용훈, 『지구화시대의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33-47.

즘과 국제정치적 노력들 그리고 경제 지구화의 비전의 특징과 그것이 실패로 끝나게 된 원인을 살폈다. 지구화 시대에 더 심각해진 글로벌 재난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세계화가 절실하다. 혹시 종교에 기반 한 윤리적 지구화가 대안적 비전이 될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종교 윤리적 지구화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물론, 세계종교가 역사 속에서 보여주었던 행태는 그런 낙관적인 기대와 희망을 여지없이 깨뜨린다. 진화생물학자 도킨스(R. Dawkins)는 종교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테러리즘과 전쟁의 중요한 원인제공자였다는 이유에서 종교를 ‘집단 망상’이라고 정의하면서, 종교 무용론 혹은 종교 해악론을 펼쳤다.³³⁾ 도킨스의 비판이 있기 훨씬 전에 종교의 몰락을 예견한 학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계몽주의자들과 세속화(탈종교화) 사회이론가들의 예견과 달리 종교는 여전히 건재하고, 심지어 대륙에 따라 종교인구나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 커지는 사례도 나타난다. 실례로, 서유럽에서 기독교 신자는 급감하는 반면 무슬림 신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와 힌두교 그리고 불교 인구가 함께 늘면서 이 지역에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도 커가고 있다.

세계종교가 글로벌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보편적 가치와 규범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종교를 재난 없는 세계를 건설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덕적 자원으로 볼 수 있다. 볼프(M. Volf)는 금세기의 지구화 비전이 정치경제적 프로젝트가 되기 이전에 이미 종교적 구상이었다는 점에서 종교를 ‘지구화의 첫 주동자’로 보기도 한다.³⁴⁾

세계종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

33) Richard Dawkins, *The God delusion*, 이한음 역, 『만들어진 신』 (과주, 김영사, 2007), 7-8.

34) Miroslav Volf, *Flourishing: why we need religion in a globalized world*, 양혜원 역, 『인간의 번영』 (서울: IVP, 2017), 67.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세계적 비전을 실현하는데 유용한 구체적 실천지침으로 보편적 사랑과 자비를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세계종교들과 철학사상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황금률(‘남에게 대접을 받고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마태 7:12)에는 그러한 보편적 도덕원리가 잘 나타나 있다. 윤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황금률에는 지구적 재난 복구에 필요한 타자 중심적이며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적인 도덕원리가 잘 나타나 있다.³⁵⁾

그리고 종교윤리는 윤리적 실천규범의 근거를 신적 권위에 두고, 그것을 절대자의 계시나 명령의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성에 호소하는 일반윤리보다 더 큰 권위와 구속력을 갖는다.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도덕심은 생존본능이나 이기심 앞에서 쉽게 약해지거나 자기정당화에 빠질 수 있지만, 신적 권위에 기초한 종교적 윤리는 때로 자기희생이라는 용감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감수하게 만들기도 한다. 기후위기와 같이 세계시민들의 자발적인 불편의 감수와 희생이 요청되는 이슈를 다룰 때 이 같은 희생적인 종교윤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도덕 자원이 될 수 있다.

2. 세계종교의 노력들과 성과

재난 없는 세계를 위한 종교인들의 노력 가운데 하나가 1990년대 초 신학자 쾅(H. Küng)이 주도한 종교간 대화와 협력에 토대를 둔 ‘지구적 에토스’ 혹은 ‘세계윤리’ 논의이다.³⁶⁾ 쾅은 ‘종교의 평화 없이는 세계평화가 없으며,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종교평화도 없다.’는 대명제 아래 인류

35) 조용훈, “기독교윤리의 관점에서 본 황금률 윤리,” 『신학과실천』 63 (2019), 658-663.

36) 한스 쾅(H. Küng)이 지구윤리나 에토스에서 말하는 윤리(Ethik)란 도덕적 가치나 규범이나 태도에 대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론이라면, 에토스(Ethos)란 한 인간이나 집단의 도덕적 근본태도라고 구분해서 이해한다. 참고: Hans Küng, *Weltethos für Weltpolitik und Weltwirtschaft* (München: Piper, 1997), 132-133.

의 생존보장에 기여 할 보편적 종교윤리를 모색했다. 도덕 없는 법이 유지될 수 없듯이, 세계윤리 없이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³⁷⁾

그가 제시한 지구윤리의 특징은 전통적인 차별의 윤리, 모순의 윤리 그리고 투쟁의 윤리를 극복할 수 있는 평화적인 보편윤리였다. 평화적인 보편윤리는 문화와 전통의 다양성만 아니라 공통의 토대를 필요로 하는데, 이 도덕의 최소치를 인간성 혹은 인본주의 정신(humanism) 및 상호성에서 찾았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세계윤리 구상’은 이후 세계종교의회에서 ‘지구적 에토스를 위한 세계윤리선언’(1993)과 ‘세계인간책임 선언’(1997)으로 발전했다.³⁸⁾ 비록 윤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세계윤리 구상이 법률적 강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지만, 지구공동체의 평화와 생존을 위한 종교(인)의 윤리적 책임성을 규정하고, 세계평화의 실현에 종교의 기여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³⁹⁾

둘째, 종교학자인 암스트롱(K. Armstrong)은 세계종교의 공통적 실천 덕목인 자비와 사랑에 기초한 지구윤리를 모색했다. 암스트롱이 세계 주요 종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양심위원회’(Council of Conscience)의 구성원들과 더불어 2009년에 작성한 ‘자비의 헌장’(Charter for Compassion)은 현대세계에 난무하는 폭력과 분열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자원으로서 ‘자비의 원칙’을 제시했다. 여기서 자비란 모든 종교

37) Hans Küng und Karl-Josef Kuschel (Hg.), *Wissenschaft und Weltethos* (München: Piper Verl. 1998), 24.

38) Hans Küng, *Projekt Weltethos*, 안명옥 역, 『세계윤리 구상』 (외판: 분도출판사, 1992); Hans Küng/Karl-Josef Kuschel (Hg.), *Erklärung zum Weltethos* (München: R. Piper, 1993).

39) 김형민, “한스 쿡의 ‘세계윤리선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학이해』 25 (2003), 162-186.

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전통의 핵심으로서, 인간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암스트롱은 그간 종교가 인간 세상에 고통을 준 과거를 반성하고, 도덕과 종교의 중심에 자비를 회복하며, 고통 받는 자에 대한 공감력을 신자들에게 장려할 것을 촉구한다.⁴⁰⁾

셋째, 위험사회론을 주장하는 사회학자 가운데 하나인 벡(U. Beck)은 계몽주의자들의 예측과 달리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다시 부흥하는 현실(종교의 귀환)을 목도하면서 글로벌 재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세계종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표현한다. 벡은 후기 산업문명사회 곧 글로벌 재난 시대를 극복하려면 세계종교들이 진리만 아니라 평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종교적 진리만 추구하다보면, 세계평화는 물론 인류의 지속적 생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⁴¹⁾ 그는 이런 진단에 기초하여 세계종교들이 정치와 결탁했던 중세교회나 민족국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혔던 근대교회가 보여준 제도화된 종교 형태를 벗어나 글로벌화 된 세계에 부응하는 세계시민적 종교 형태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⁴²⁾

3.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활동과 미래적 과제

1) 에큐메니칼 운동사에 나타난 재난 없는 세계를 위한 노력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기독교의 대표적인 노력은 WCC의 에

40) Karen Armstrong, *Twelve steps to a compassionate life*, 권혁 역, 『카렌 암스트롱, 자비를 말하다』 (서울: 돌출새김, 2012), 13-15.

41) Ulrich Beck, *Eigene Gott: von der Friedensfähigkeit und dem Gewaltpotential der Religionen*, 홍찬숙 역, 『자기만의 신: 우리에게 아직 신이 존재할 수 있는가』 (서울: 길, 2013), 265, 256.

42) 위의 책, 174-179.

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온 세상을 ‘한 집안의 살림살이’(oikos)처럼 간주하면서, 종교 간 화해와 일치 및 세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세계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최경석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성격을 교회적 권위를 지닌 ‘공의회적 사회모델’(K. Raiser) 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시민 사회모델’(T. Jahnichen)’로 구분하여 설명한다.⁴³⁾

재난 없는 세계를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분열된 교회의 일치(1-4차 총회, 1948-1968)에 관심했던 초창기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종교간 대화와 연대(5차 총회, 1975)를 거쳐, 나중에는 연대와 협력의 지평을 종교라는 경계를 넘어서 전 인류로 확대했고(6차 총회, 1983), 마침내 생태계와의 연합(7차 총회, 1991)으로까지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간 역사로 볼 수 있다.⁴⁴⁾ WCC 창립 50주년 회년총회(8차 총회, 1998)와 9차 총회(2006)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 10차 총회(2013)는 기아와 전쟁 그리고 환경위기는 지구적 재난에 맞서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를 보전하려는 기독교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⁴⁵⁾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력과 전쟁이라는 지구적 재난의 극복을 위한 기독교의 관심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개최한 제1차 WCC총회(1948)에서 ‘책임사회’라는 이념을 내세운 데 잘 나타났다. WCC 국가 간 정의의 문제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임을 깨닫고, 평화를 정의와 관련시켜 이해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개발(발전)이나 해방(탈 종속)

43) 최경석, “다른 지구화를 위한 모델 찾기: 기독교윤리적 전망,” 『장신논단』 45/2 (2013), 13-39.

44) 장재호, “에큐메니칼운동 연구방법론: 세계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신학과세계』 97 (2019), 397-432.

45) 부산에서 열린 10차 총회의 주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였다.

과 같은 사회과학적 개념들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하여 수용한 이유도 같은 배경이었다. 그리고 핵무기의 확산이 계속되자 핵무기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라고 선언하면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스위스 제네바 WCC센터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라는 단체가 2017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WCC의 평화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다.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 이슈와 관련하여 WCC는 9차 총회(2006)에서 채택한 AGAPE문서(Alternative Globalization Addressing Peoples and Earth)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념에 기초한 지구화 경제를 ‘죽음의 경제’로 이름붙이고, 그것이 불러온 전 세계적 빈곤과 기아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생명의 경제’를 대안적 세계화의 방향으로 제시했다.⁴⁶⁾

또 다른 글로벌 재난인 환경파괴나 기후위기 이슈는 1983년 밴쿠버 총회와 1989년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서울대회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JPIC) 이래로 줄곧 WCC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WCC는 1992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워킹그룹을 조직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연계하여 활동하도록 했고, 10차 총회 때에는 ‘공공문제보고서 위원회’에서 기후정의에 관한 회의록을 채택했으며, 실행위원회에서 ‘기후정의에 관한 성명서’(2016)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위원회’(CCCSD)를 신설하여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대응활동을 다짐하기도 했다.

46) 신경규, “세계화와 빈곤, 그리고 선교,” 『선교신학』 45 (2017), 152-163.

2) 재난 없는 세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

재난 없는 세계에 대한 꿈은 종교인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가치로서 인류의 공동선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지구촌이 하나의 마을로 변한 지구화시대에 글로벌 재난의 극복은 세계종교를 포함해서 전 세계시민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공동적 과제다. 신학적으로 볼 때, 공동선이란 가치는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가 주장한 기독교의 일반은총 사상은 물론 종교 개혁가들에게서도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는 윤리적 가치다.⁴⁷⁾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기독교가 종종 폭력의 원인을 제공하고 전쟁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며, 기후위기의 세계관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심과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재난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도덕적 자원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독교가 여러 가지 글로벌 재난의 원인제공자였다는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신앙의 국가화 혹은 이데올로기화를 피해야 한다. 세계역사는 종교가 국가 이데올로기나 인종과 결합할 때 으레 폭력적으로 변질되었음을 증언한다. 벡(U. Beck)이 지적했듯이, 19세기 제국주의에서 20세기 세계대전에 이르는 동안 종교들은 민족(주의)과 결합하면서 엄청난 폭력을 만들어 냈다.⁴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기독교가 국가주의 및 인종주의의 포로가 되어 반유대주의에 앞장서고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은 대표적 사례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기간 중 러시아 정교회의 총대주교 키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신학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세계평화만 아니라 교회의 일치에

47) 송용원, “프로테스탄트 공동선을 찾아서,” 『장신논단』 49/1 (2017), 37-63.

48) Ulrich Beck, 『자기만의 신』, 225.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기독교가 재난 없는 세계라는 공동선을 실현하려면 신앙을 현실 세계와 무관하다거나 개인의 사사로운 영역으로 협소화하려는 유혹을 버리고, 공적 혹은 공공적 차원에서 도덕적 실천과 정치적 참여에 관심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일부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이나 종교 활동을 위해 사회에 어떤 위해를 끼치고, 어떻게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갔는지를 목도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특정 종교단체만 아니라 기독교 선교활동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종교인들은 특정 종교의 신앙인 혹은 종교인이라는 정체성에 머물지 말고, 한 사회의 책임 있는 시민, 나아가 세계시민이라는 정체성으로 끊임없이 자아를 확장해야 하겠다.

V. 나가는 말

지구화 과정은 국가들 사이의 의존도를 높이면서 재난의 위험도 함께 높였다. 한 지역이나 한 국가의 재난은 짧은 기간 안에 이웃나라로 확산된다. 지금의 경제위기, 테러리즘과 전쟁, 기후위기 그리고 글로벌 감염병은 전통적인 지역과 국가 단위에 기초해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글로벌 재난들이다. 그간 인류는 재난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을 비롯하여 2차 세계대전 후 유엔의 국제정치적 노력과 결실로 나타난 유엔기구들, 그리고 1980년대에 세계시장의 통합에 기반 한 경제 지구화를 통한 팍스 에코노미카라는 비전이 있었지만 모두 좌절되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사이의 패권다툼 그리고 기후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재난 시대에 재난 없는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과

그것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력을 지닌 세계종교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세계종교가 재난의 원인제공자라는 오명을 벗고 인류구원이라는 기대에 부응하려면 종교적 신앙의 사사화나, 특정종교의 집단적 이기주의, 그리고 종교적 근본주의라는 함정을 피해야 한다. 특별히, 글로벌 재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교회의 일치를 넘어 세계평화와 창조질서보전에 힘쓰는 세계교회협의회와의 연대와 협력에 더 많이 관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남순. 『코스모폴리타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 김형민. “한스 킹의 ‘세계윤리선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학이해』 25 (2003), 162-186.
- 박선미 · 김희순. 『빈곤의 연대기』. 서울: 갈라파고스, 2015.
- 송용원. “프로테스탄트 공동선을 찾아서,” 『장신논단』 49/1 (2017), 37-63.
- 신경규. “세계화와 빈곤, 그리고 선교,” 『선교신학』 45 (2017), 131-170.
- 장재호. “에큐메니칼 운동 연구 방법론: 세계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신학과세계』 97 (2019), 397-432.
- 조용훈. 『지구화시대의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_____. “기독교윤리의 관점에서 본 황금률 윤리,” 『신학과실천』 63 (2019), 655-676.
- 조효제. 『탄소 사회의 종말』. 파주: 21세기북스, 2020.
- 최경석. “다른 지구화를 위한 모델 찾기: 기독교윤리적 전망,” 『장신논단』 45/2 (2013), 13-39.
- 허경희. 『새로운 밀레니엄은 없다』. 서울: 오름시스템, 1999.
- Alt, Fanz. *Der Okonomische Jesus*. 손성현 역. 『생태주의자 예수』. 서울: 나무심는 사람, 2003.
- Armstrong, Karen. *Twelve steps to a compassionate life*. 권혁 역. 『카렌 암스트롱, 자비를 말하다』. 서울: 돌출새김, 2012.
- Beck, Ulrich.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홍성태 역.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1997.
- _____. *Eigene Gott: von der Friedensfähigkeit und dem Gewaltpotential der Religionen*. 홍찬숙 역. 『자기만의 신: 우리에게 아직 신이 존재할 수 있는가』. 서울: 길, 2013.
- Dawkins, Richard. *The God delusion*. 이한음 역. 『만들어진 신』. 파주: 김영사, 2007.
- Friedman, Thomas L.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신동욱 역.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서울: 창해, 2000.

- _____. *The world is flat: a brief history of the twenty-first century*. 김상철 외 역. 『세계는 평평하다』. 서울: 창해, 2005.
-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이상훈 역. 『역사의 종말』. 서울: 한마음사, 1997.
- Kaldor, Mary. *New & Old Wars: Orgarnized Violence in a Global Era*. 유강은 역. 『새로운 전쟁과 낡은 전쟁, 세계화 시대의 조직화된 폭력』. 서울: 그린비, 2010.
- Klein, Nomi. *The Shock Doctrine: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 김소희 역. 『쇼크 독트린: 자본주의 재앙의 도래』. 파주: 살림출판사, 2008.
- _____. *This changes everything: capitalism vs. the climate*. 이순희 역.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파주: 열린책들, 2016.
- Küng, Hans. *Projekt Weltethos*. 안명옥 역. 『세계윤리 구상』. 왜관: 분도출판사, 1992.
- _____. *Weltethos für Weltpolitik und Weltwirtschaft*. München: Piper, 1997.
- Küng, Hans und Kuschel, Karl-Josef, (Hg). *Erklärung zum Weltethos*. München: R. Piper, 1993.
- _____. *Wissenschaft und Weltethos*. München: Piper Verl. 1998.
- Micheline, Ishay. *The History of Human Rights: From Ancient Times to the Globalization Era*. 조효제 역. 『세계인권사상사』. 서울: 길, 2005.
- Moltmann, Jurgen. *Ethik der Hoffnung*. 곽혜원 역. 『희망의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Monbiot, George. *The Age of Consent: A Manifesto for a New World Order*. 황정아 역. 『도둑맞은 세계화』. 파주: 창비, 2006.
- Mutter, John C. *Disasterprofiteers: how natural disasters make the rich richer and the poor even poorer*. 장상미 역. 『재난 불평등: 왜 재난은 가난한 이를 에게만 가혹할까』. 서울: 동녘, 2016.
- Sagan, Carl, *Cosmos*, 홍승수 역, 『코스모스』. 특별판. 서울: 사이언스북스, 2020.
- Singer, Peter. *One World: The ethics of globalization*. 김희정 역. 『세계화의 윤리』. 파주: 아카넷, 2003.
- Smick, David M, *The world is curved: hidden dangers to the global economy*. 이영준 역. 『세계는 평평하지 않다』. 서울: 한국물가정보, 2009.

- Stiglitz, Joseph, *Making Globalization Work*. 홍민경 역.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파주: 21세기북스, 2008.
- Volf, Miroslav. *Flourishing: why we need religion in a globalized world*. 양혜원 역. 『인간의 변영』. 서울: IVP, 2017.
- Walters, M. Jerome. *Six modern plagues: and how we are caused them*. 이한음 역. 『에코데믹, 끝나지 않는 전염병』. 서울: 책세상, 2020.
- Zizek, Slavoj. *Pandemic: COVID19 shakes the world*. 강우성 역. 『팬데믹 패닉』. 서울: 북하우스, 2020.

논문투고일: 2022년 11월 10일

심사개시일: 2022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07일

• 국 문 초 록 •

국가 간 의존성이 커진 글로벌 시대에는 재난도 글로벌화 된다. 오늘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위기, 테러리즘과 전쟁, 기후위기 그리고 글로벌 감염병 같은 글로벌 재난은 그 구조가 복잡해서 원인을 밝히고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재난 없는 세계를 위해 인류가 추구했던 철학적 코스모폴리타니즘과 국제정치적 유엔기구들, 그리고 경제 지구화를 통한 팍스 에코노미카(pax economica)는 오늘날 실패한 전략으로 드러나고 있다. 세계는 여전히 기아와 전쟁 그리고 기후재앙에다 글로벌 감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인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글로벌 재난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대안적 세계화의 가능성을 종교적 자원에서 찾아보려는데 그 목적을 둔다.

황금률에서 보듯이, 세계종교는 재난 없는 하나 된 세상에 대한 비전과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랑과 자비라는 도덕적 자원도 지니고 있다. 다만, 세계종교가 역사 속에 나타난 도덕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먼저, 신앙의 사사화 및 국가화라는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인의 정체성을 특정종교인에서 세계시민으로 끊임없이 확장해야 한다.

주제어: 글로벌 재난, 코스모폴리타니즘, 유엔, 팍스 에코노미카, 에큐메니칼 운동
